

‘어등산 묻지마 살인’ 아침부터 흥기 들고 다녔는데...

# 시민의식 실종...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정신분열 증세 40대남자

오후 5시17분 범행

전날 인근 대학 배회 아찔

휴일 오후 광주 어등산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은 군복을 입고 왼손에 30cm가량의 흉기를 감고서 오전부터 산을 배회했지만, 범행 직전까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휴대한 40대 남성이 온종일 등산로를 오갔는데도, 일면식이 없던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기 전까지 무려 10시간 가량 등산객 그 누구도 이를 수상히 여기고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군복에 흉기 손에 감고 아침부터 산행했지만=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49·광주 광산구)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에 어등산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대학교에서 전날 줄은 예비군복을 입고 왼손과 팔목 안에는 길이 30cm가량의 흉기를 감고 서다. 40대 남성이 군복을 입고 왼손과 왼팔 부위에 기다란 흉기를 숨웃을 이용해 부착하고 다녔지만 이날 오후 5시 17분 ‘사건 발생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어등산을 찾아 팔각정에서 휴식을 취하던 이모(63)씨가 김씨에게 희생되기 전까지 아무도 그의 위험성을 깨닫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신고는 범행 직후인 17일 오후 5시17분 이후 집중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10여분 사이 20통 이상이 걸려온 것이다. 이 등산로가 사실상 시민들이 오가

는 유일한 등산로인데다, 휴일을 맞아 수백명이 같은 코스의 등산로를 이용했는데도 군복을 입은 40대 남성 김씨가 살인 행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그 누구도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했다. 이는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원손과 왼팔 부위에 숨웃을 이용해 흉기를 감었다고 해도, 40대 남성이 예사롭지 않은 행동을 하고 군복을 입고 온종일 어등산을 쏘다녔는데 범행 직후까지 아무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요즘엔 손으로 직접 때리고 범행하기 전까지는 누가 신고도 않는 풍조”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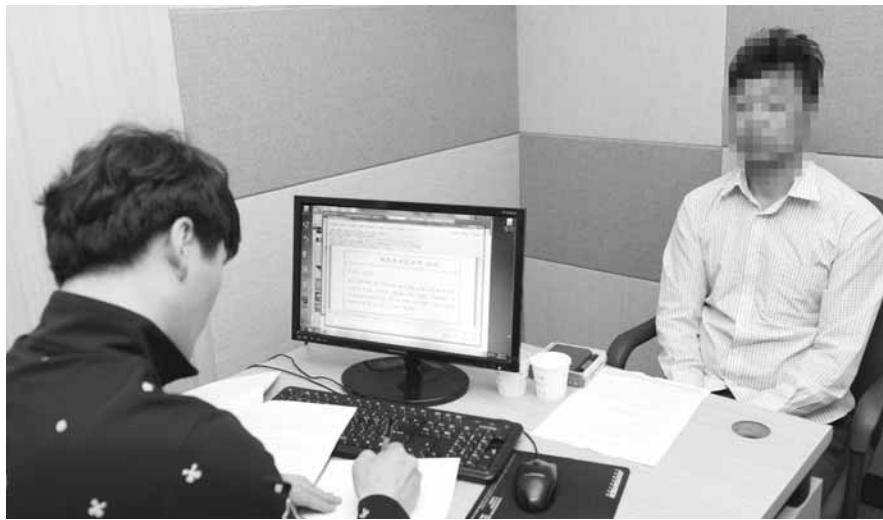
◇정신병원 입원했다...사건의 재구성 = 평온하던 휴일 오후 일면식이 없는 60대 남성을 살해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나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당시 팔각정에서 쉬고 있던 3명이 모두 전화통화를 하던 중 김씨가 다가서자 2명은 달아났고 희생된 이씨 혼자 미처 달아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김씨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전화기를 쥐바라”며 다가서자 이씨가 거부했고, 그 순간 흉기로 이씨의 목과 가슴, 등, 허벅지 등 9곳을 찔러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그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배경과 어등산을 배회하게 된 이유도 이날 경찰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가족과 함께 광주의 한 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 입원을 권유받고 귀가한 이후에도 가족들이 재차 입원을 강요하자 광산구 우산동 자택에서 뛰쳐나왔다. 이후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비닐하우스에서 흉기

를 주웠고 비가 오자 인근 대학에 들어가 쉬던 중 쓰레기통에 버려진 예비군복을 입고 하룻밤을 보냈다. 이날 오전 8시께 평소 찾은 적 있던 어등산에 올랐고 마구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M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M씨는 ‘정신 감정’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 사실을 묻자 “정신상태는 좋다. 정신감정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M씨의 발언과 변호인의 주장이 상충되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심신미약 여부를 주장할 것인지와 정신감정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다음 재판까지 확실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다음달 11일 열기로 했다. M씨는 지난달 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상가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PC방 업주 A(38)씨를 살해하고, 손님 B씨의 휴대전화와 의류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어등산 등산로에서 생면부지의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모(49)씨가 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아래는 묻지마 살인 행각이 벌어진 어등산 팔각정 인근.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를 주웠고 비가 오자 인근 대학에 들어가 쉬던 중 쓰레기통에 버려진 예비군복을 입고 하룻밤을 보냈다. 이날 오전 8시께 평소 찾은 적 있던 어등산에 올랐고 마구

쏘다녔던 중 자신을 보며 전화통화를 한 이씨를 발견, 따져 묻다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화순전남대병원 압수수색

경찰,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수사

경찰이 화순전남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5일 수사관을 보내 화순전남대병원 국제메디컬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 병원 직원 J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사업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선정돼 2010년부터 국비 13억여원을 받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에 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수사 초기라 횡령의 규모는 아직 추산되지 않았고 그동안 집행된 보조금 내역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부구청장이 본인 묘목 구청에 판매 논란

식목행사 추진중 업체 통해 팔아

광주 모 구청의 부구청장이 식목일 행사를 추진하면서 자신 소유의 묘목을 구청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최근 환경미화원 채용에서 이 부구청장의 친척이 유일하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청은 총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28일 ‘제7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맞춰 선교동 너릿재 체육센터 주변에 높이 2~3m의 이팝나무 150주를 식재했다.

당시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홍모 부구청장은 식목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이 키우고 있는 이팝나무를 식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부구청장은 3년 전부터 광산구

평동에서 300여 그루의 이팝나무를 재배해왔으며, 이번 식목 행사를 앞두고 150그루를 A업체를 통해 동구청에 판매해 600만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발표된 환경미화원 최종 합격자 명단에 홍 부구청장의 친척인 A(31)씨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채용과정에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동구는 지난 3월 중순 환경미화원 1명 채용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 12명중 A씨만 합격했다. 취재가 진행되자 A씨는 18일 동구청에 “임용 포기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홍 부구청장은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변호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주장에

### 케냐인은 “정신상태 좋다” 정신감정 거부

‘PC방 잔혹 살인’ 첫 공판

PC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케냐 국적의 난민신청자는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그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데 반해 그는 “정신은 좋다”고 부인하면서, 앞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법정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케냐인 M(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생년월일·국적·주소 등 인정신문을 거

친 M씨의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예스’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환각 상태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어떤 다른 힘에 이끌려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M씨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병원진단은 없지만, ‘누군가 조종하는 힘이 있다’ ‘경찰관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오려고 해 난동을 피웠다’ 등의 말을 했다”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주변사람들도 M씨가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M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M씨는 ‘정신 감정’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 사실을 묻자 “정신상태는 좋다. 정신감정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M씨의 발언과 변호인의 주장이 상충되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인지와 정신감정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다음 재판까지 확실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다음달 11일 열기로 했다.

M씨는 지난달 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상가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PC방 업주 A(38)씨를 살해하고, 손님 B씨의 휴대전화와 의류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아파트 주차장서 교사 숨진채 발견

18일 낮 12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모(34)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씨는 이날 출근했다가 2교시 수업 이후 학교 측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14층에는 이씨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들은 경찰에서 “5~6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에 힘들어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이씨가 충동적으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투자금 돌려달라” 염산 투척후 도주 50대 남성 추적

광주에서 투자금 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여행사 대표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리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 50대 남성을 추적 중이다.

18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광주시 동구에 있는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안모(50)씨가 이 여행사 대표 이모(43)씨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리고 도주했다.

이씨는 얼굴과 목 주변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판매한 외제차 다시 빼앗은 조폭...수감중인 피해자 신고로 탈피

“...자신이 판매한 외제차량을 다시 빼앗은 조폭력배가 살인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탈피.

“...18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의 한 폭력조직 행동조직원인 양모(33)씨는 지난 2010년 5월 26일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34)씨를 주먹으로 때리

고 협박해 자신이 1200만원 받고 팔았던 벤츠승용차를 다시 빼앗은 혐의.

“...양씨는 당시 “내 전화 한통이면 애들이 다 온다. 내가 네 딸 유치원도 알고 있다”면서 협박하고 2~3회 때린 후 차를 몰고 사라졌는데, 지난 2월 해남교도소에 수감중인 피해자 박씨가 “자칫 외제차 절도 혐의도 추가될 뻔했”이라며 경찰에 해당 사건을 고소하면서 범행이 탄로.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여수서교동, 상업지역, 대지매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9억 5천만원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등등 적합

주인직매 H. 010-8829-6876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십시오!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교육비 1,200만원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